

RI관련(일반면허, 감독면허, 특수면허) 면허자 보수교육 실시

7월 21일(금) 협회 강의실에서 RI관련(일반면허, 감독면허, 특수면허) 면허자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면허자들의 방사선관련 기술 습득, 안전의식 고취 등 자질 함양을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총 85명(감독자면허 14명, 일반면허 53명, 특수면허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자력관계법령 및 방사선안전관리규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정책실 김창법 실장)' 과 '방사선안전관리 실무(성균관대학교 이상복)' 를 동영상 및 시청각교육을 겸하여 실시하였다.

동 교육은 원자력법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하는 RI관련 면허자가 면허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보수교육 대상자는 2003년도에 동교육을 이수한 자나 면허를 취득한 자이다.

우리협회는 RI관련 면허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방사선안전관리실무와 관련된 전문과정을 마련 실시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 전문과정(3일)은 11월 22일(수)~24일(금) 제주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7월 중 서울·경기 및 경상 지역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종사자 및 기존종사자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7월 4일(화) 부산대학교병원/63명(기준) ▶11일(화)~14일(금) 인제대학교/98명(기준), 46명(신규) ▶13일(목)~14일(금) 울산대학교/167명(기준), 177명(신규) ▶19일(수)~20일(목) 한양대학교/83명(기준), 99명(신규) ▶25일(화) 고려대

학교/182명(기준) ▶27일(목)~28일(금)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실시되었다.

우리협회는 전국에 분포돼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장거리 출장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정된 교육 외에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수강생(방사선작업종사자등)이 확보되면 추가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원자력기술 수출 방안을 위한 회의 개최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는 원자력협력과 주관으로 7월 7일(금)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원자력기술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원자력발전분야와 방사선기술(RT)이용분야 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과학기술부 양성광 원자력협력과장은 인사말에서 원자력 선진국가인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 의의와

가능성을 언급하고 경쟁력 있는 원자력수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지원방안을 찾아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각 참석기관의 관계자는 그 간의 수출현황과 관련 활동현황을 소개하면서 원자력 발전분야의 제도적 지원 및 예산 지원의 불충분함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기술 분야는 해외 수출을 위해서 국내 중소 RT 산업체들을 위한 해외홍보 및 마케팅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 취

합함과 동시에 조만간 구성되는 과학기술부내 원자력 기술수출 지원팀을 기초로 정부와 업체 및 전문가로 구성될 원자력 기술수출 지원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가기관 :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원자력협력재단,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파괴검사협회, 원자력산업회의, 한국전력(주), 한국수력원자력(주), 두산중공업(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자력 기술수출 지원팀” 신설

- 원자력협력 · 마케팅 분야 전문인력 3명으로 8월 팀구성 -
- 관련 업계 지원 및 정보 제공, 주력 수출 품목 발굴 -

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력을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원자력 기술수출 지원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기부내에 신설되는 원자력 기술수출 지원팀은 원자력 기술수출을 위해 정부의 관련 수출업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원자력협력 · 해외마케팅 분야 전문인력 3명으로 구성되며 금년 8월초까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동 지원팀은 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양국간 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규모가 영세하고 해외 시장

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비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 분야별로 유력한 바이어를 발굴하거나, 수출업체와 바이어를 연계시키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분야 해외 시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사선의 의약적 이용 등 비발전분야와 연계한 해외 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 분야의 수출 가능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해 나가며,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양국간 회의나 외국 고위인사 초청 등 기존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방사선안전의 신뢰와 비전을 위한 대토론회

- 7월 20~21일 교육문화회관, “방사선안전 심포지움” 개최 -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원기)은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방사선안전의 신뢰와 비전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한 방사선안전 전략 구축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소, 정부기관 등 관계 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방사선안전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움에서는 “방사선안전의 현실과 도전”을

주제로 첨단기술발전과 미래사회 및 방사선안전의 현안문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총 6개로 구성된 기술분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방사선안전성 확보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루어졌다.

방사선안전 심포지움은 방사선안전의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및 산·학·연 등 방사선 유관기관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관련기관 간

의 정보교류의 장 제공 및 상호협조체계의 구축, 유관 기관간의 인지도 제고 및 방사선안전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금번 방사선안전 심포지움이 방사선

안전의 신뢰와 비전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향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사선 안전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원자력분야 관계기관 설명회

7월 19일(수)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원자력발전 관계사업자, 원자력산업회의, RI협회, RI등 판매기관 및 판독회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된 설명회 및 원자력분야에 대한 검토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문기 원자력국장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에너지분야(원자력 및 RI분야 포함)에 대한 그동안의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이 국장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모두 유보(안)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우리가 개방해서 유리한 분야에 대해서 FTA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원자력 유관기관 모두가 한·미 FTA협상에 대한 많은 관심과 홍보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동안 한·미 FTA 공식 협상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미 FTA 1차 협상 결과>

□ 협상 개요

- 일시/장소 : 2006. 6. 5(월)~9(금) / 워싱턴 DC
- 대표단 현황
 - 우리측은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김종훈), 재경부, 외교부 등 23개 부처 및 11개 국책연구기관에서 146명 참석
 - 미측은 수석대표(Wendy Cutler), USTR, 상무부 등에서 180여명 참석
- 협상 주안점 : 양측 입장 파악 및 쟁점 정리에 주력하며 초안을 통합

□ 협상 결과

- 대부분의 분과에서 양측이 각각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통합하여 차기 협상의 기초를 마련함

○ 과학기술부 참여 분과 협상결과

- 투자분과 및 서비스(일시입국 논의 포함)분과에 참여함
- 전체 협정문 축조심의를 마쳐 2차 협상 시 개별 분야 유보안 교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

□ 협상 개요

- 일시/장소 : 2006. 7. 10(월)~14(금) / 서울 호텔 신라
- 대표단 현황 : 우리측 270명(과학기술 5명) / 미국측 75명

□ 협상 결과 (서비스·투자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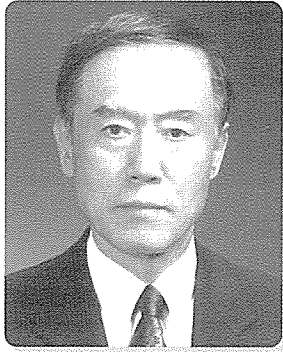
-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적용범위 등에 관한 기본 입장 교환
- 양측은 계획대로 서비스·투자 유보안 초안을 교환(7.12)하고 유보안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질의응답 및 논의 진행
- 과학기술부 관련사항은 금번 협상에서는 논의되지 않음
- 차기 협상에서 분야별 구체적인 논의 진행 예정
- 7.11(화)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의에서의 입장차로 인해 미측은 7.13(목) 개최 예정이던 서비스 분과회의에 불참

□ 향후 일정

- '06. 9. 5~6 3차 협상 개최 예정 (미국)
- '06. 11월(4차), 12월(5차) 협상 개최 예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새로운 이사장에 한영성 전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 취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원기) 제6대 이사장에 한영성 전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67)이 취임하였다.

신임 한 이사장은 서울대를 나와 과학기술처 원자력실장, 국립중앙과학관장, 과학기술처 차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2006 여성과 함께하는 원자력 심포지엄 개최

- '방사선 조사 식품은 안전한가' 를 주제로 27일 국회에서 열려 -

최근 학교급식의 안전성 문제가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며 그 대안으로 학교급식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내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여성 전문가들의 모임인 (사)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회장 홍성운)는 7월 2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06 여성과 함께 하는 원자력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방사선 조사 식품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방사선 식품 관련 국내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심포지엄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주운 박사의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기술',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상배 박사의 '방사선 조사 식품의 관리 규정', 아주대 의과대학 이수영 교수의 '방사선 조사 식품을 섭취하면 어떨까'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소 변명우 박사, 한림대 강일준 교수,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 국회 박성철 입법정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상배박사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으로 새로운 식품 저장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사선

조사 방법과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불거진 학교 급식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방사선조사기술 도입 의견이 나오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방사선 식품 조사기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는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기치로 세계 60여 개국 2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만든 국제적 네트워크인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Women In Nuclear-Global)의 국내 조직이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에서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다양한 주제로 매년 '여성과 함께하는 원자력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일반인들의 원자력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동 협회는 퀴리부인의 탄생을 기념하여 2000년 11월 7일 설립되어 이듬해인 2001년 5월 서울에서 WIN-Global 연차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원자력 관련기관의 여성전문가 2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